

최근 5년간(2000-2005)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소아치과의 진료현황 변화 및 신환분포에 대한 조사

최은정 · 정태련 · 김종철 · 김영재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소아치과학교실 및 치학연구소

국문초록

최근 출생률 감소, 우식 유병률 감소, 소아치과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변화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 및 치의학 기술의 발전에 따른 진료기법의 변화등에 의하여 소아치과 진료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앞으로 소아치과 의료의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2000년 9월 1일부터 2005년 8월 31일까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소아치과에 내원한 모든 초진 및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환 분포 및 진료 현황 변화 추세를 조사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2000년도에는 예방치료가 14.5%, 수복치료가 52.6%, 외과치료가 11.4%, 교정치료가 21.5%를 차지하였으나, 2005년도에는 예방치료가 12.1%, 수복치료가 38.3%, 외과치료가 13.7%, 교정치료가 35.9%를 차지하여 예방과 수복치료의 비율의 감소와 외과와 교정치료의 증가를 보였다.
2. 수복치료의 비율에 있어서 아말감과 기성금관, 치수치료의 비율은 감소하였고 글래스 아이오노마와 레진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3. 내원환자의 수는 2002년까지 증가하다 이후로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4. 연령별 분포에서 2000년도에 비하여 2005년도의 신환 평균 연령이 감소하였다.

주요어 : 진료현황, 변화추세, 신환분포, 평균연령, 진료별 비율

I. 서 론

최근 출생률 감소와 소가족화에 따른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 소아치과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변화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 및 치의학기술의 발전과 진료기법의 변화 등에 의하여 소아치과 진료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치아우식의 치료나 발치 등 주소의 해결을 위한 단편적인 치료가 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 들어 심미치료, 예방치료 및 교정치료 등으로 진료의 양상이 다각화되고 있다. 또한 소아와 청소년만 전문적

으로 진료하는 의원이 늘어나고 더 포괄적인 진료를 하고자 하는 소아치과 의사의 수가 증가하면서 소아치과의 진료 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동안의 소아치과 진료 현황과 소아치과 의사의 직무 변화에 대한 역학적인 조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차^{1,2)}는 1980년과 1986년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소아치과의 진료현황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바 있으나 이후로는 대부분의 연구가 소아치과에 내원한 신환 분석으로만 제한되는 경향을 보였다. 최와 손³⁾은 1991년 연세대학교 치과 병원 소아치과에 내원한 신환에 대한 분석연구를 시행하였고, 김 등⁴⁾은 1996년 수도권 지역 치과의사의 행동조절 진료현황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류 등⁵⁾은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소아치과에 내원한 신환에 관한 역학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에 본 조사는 지난 5년간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소아치과에 내원한 초진,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기초적인 진료현황과 변화양

교신저자 : 김영재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1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소아치과학교실
Tel: 02-2072-3080
E-mail: neokarma@snu.ac.kr

상을 파악하고 향후 소아치과 의료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시행하였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00년 9월 1일부터 2005년 8월 31일까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소아치과에 내원한 모든 초진 및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2000년 9월 1일부터 2005년 8월 31일까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소아치과에 내원한 모든 초진 및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종합의료정보시스템(OCS)을 통하여 1년간의 외래환자집계 및 수가코드별 진료 행위건수를 조사하였다.

1) 연도별 내원환자수의 분포

최근 5년간 소아치과에 내원한 초진, 재진환자의 수를 매년 9월 1일에서부터 다음해 8월 31일까지 집계하여 연도별 변화 추세를 조사하였다.

2) 연령별 내원환자 분포 및 평균연령

내원환자의 각 연령군을 0~2세, 3~4세, 5~6세, 7~8세, 9~10

세, 11세 이상의 6개의 연령군으로 분류하여 연도별 변화추세를 조사하고 전체 신환의 평균 연령 및 0~6세군의 평균연령을 조사하였다.

3) 연도별 전체 진료현황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소아치과에서 시행되는 모든 진료술식을 수가코드에 따라 코딩하고 각 항목의 연도별 행위건수를 조사하였다. 또한 각 술식을 예방, 수복, 외과, 교정치료의 4개군으로 분류하여 군별 변화추세를 조사하고, 연도별 수복치료의 술식별 비율을 조사하였다.

III. 연구성적

1. 연도별 내원환자수의 분포

2000년에는 576명이던 신환 수가 2001년에는 2236명, 2002년에는 8배인 4340명까지 증가했으나, 2002년 이후로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05년에는 4036명이었다. 재진환자의 수는 매년 3만 명 정도로 유지되었다(Table 1).

2. 연령별 내원환자 분포

연령별 신환 분포에서 만 3세에서 4세 군이 매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5세에서 8세군의 비율이 0세에서 4세군에 비하여 높았으나 2005년도에는 두 군이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Fig. 1). 연도별 신환 평균 연령의 변화

Table 1. Number of visiting patients per year

	2000-2001	2001-2002	2002-2003	2003-2004	2004-2005
New patient	576	2236	4340	3927	4036
Old patient	19529	28714	29711	28105	29637
Total	20105	30950	34051	32032	336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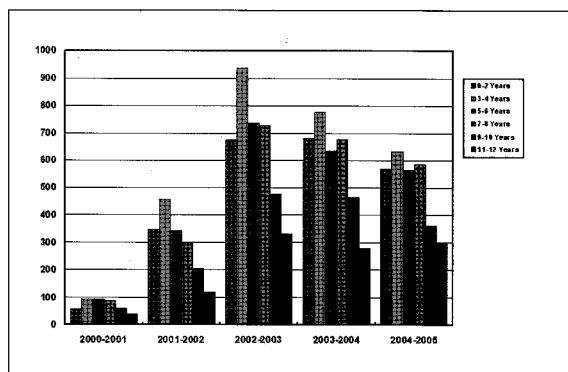


Fig. 1. Number of new patients by age per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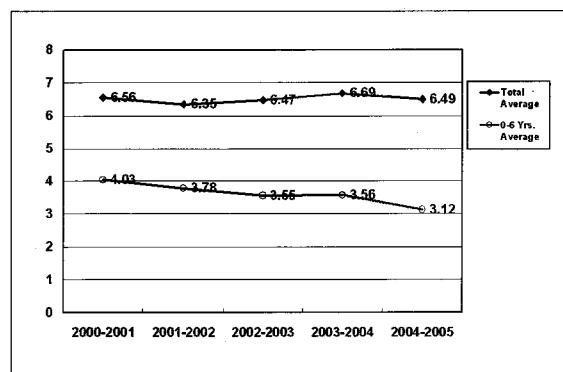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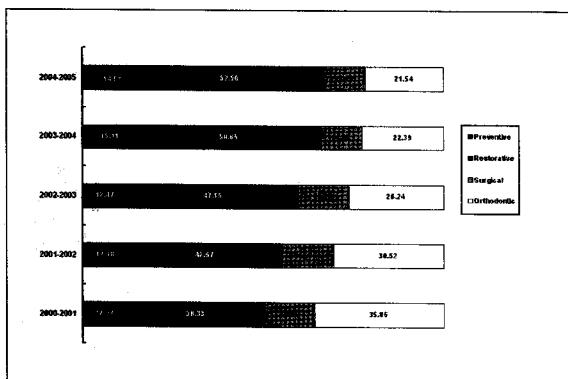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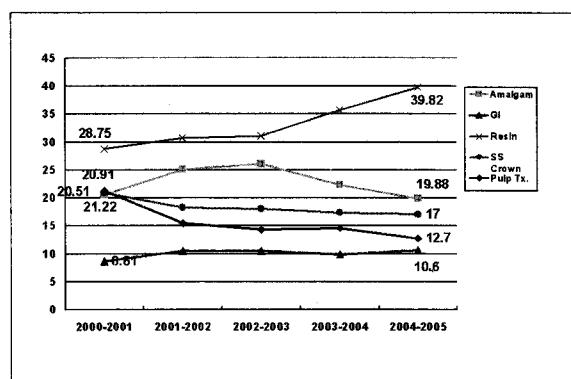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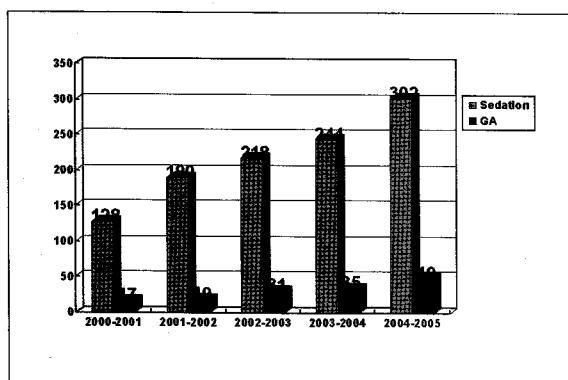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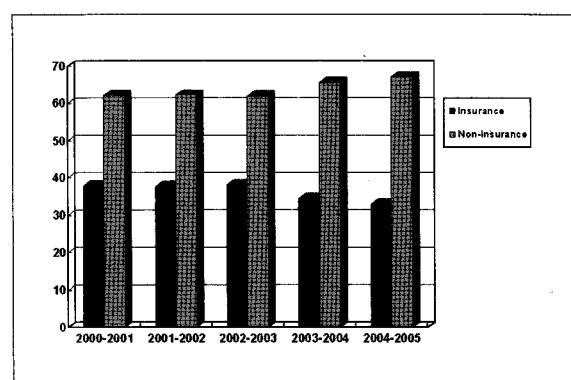


Fig. 2. Change in the average age of new patients (years).

**Fig. 3.** Distribution of type of treatment per year (%).**Fig. 4.** Distribution of type of restorative treatment per year (%).**Fig. 5.** Number of treatments under sedation and general anesthesia(GA) per year (%).**Fig. 6.** Ratio of national insurance treatments versus non-insurance treatments.

를 조사한 결과, 2000년도에 비하여 2005년도의 신환 평균 연령이 6.6세에서 6.5세로 감소하였고, 0-6세군 내에서의 신환 평균 연령은 4.0세에서 3.1세로 감소하였다(Fig. 2).

3. 연도별 전체 진료 현황

2000년도에는 예방치료가 전체 치료의 14.5%, 수복치료가 52.6%, 외과치료가 11.4%, 교정치료가 21.5%를 차지하였으나, 2005년도에는 예방치료가 12.1%, 수복치료가 38.3%, 외과치료가 13.7%, 교정치료가 35.9%를 차지하여 예방과 수복 치료 비율의 감소와 외과와 교정치료 비율의 증가를 보였다(Fig. 3).

연도별 수복치료 중 각 치료별 비율 변화를 조사한 결과, 아말감과 기성금관, 치수치료의 비율은 감소하였고 글래스 아이 오노마와 레진치료의 비율은 증가하였다(Fig. 4). 진정치료와 전신마취 치료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1년간 진정치료는 모두 302건, 전신마취는 모두 49건 시행되었다(Fig. 5). 전체 진료 중 건강보험 급여치료 와 비급여치료의 비율을 비교한 결과, 아말감이나 치수치료 등

의 보험치료의 비율은 2000년 37.7%에서 2005년 33.0%로 감소하였고, 레진과 교정치료 등의 비보험치료의 비율은 2000년 62.3%에서 2005년 67.0%로 증가하였다(Fig. 6).

IV. 총괄 및 고찰

2000년에서 2002년까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소아치과의 신환수는 8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이후 2005년까지는 점진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서울지역에서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치과의원의 증가로 인하여 많은 수의 소아 환자가 분산된 결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은 진료기관의 역할 분담의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더 어린 나이의 신환내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보호자들의 유·소아의 구강위생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소아치과에서의 전반적인 진료 양상의 변화도 관찰되었다. 수복치료의 감소는 서울지역에서의 우식발생율의 감소와 지역치과의원으로의 환자분산과 연관된 것으로 생각된다.

수복치료의 양상도 변화하고 있다. 아말감의 감소와 레진의 증가는 접착성 치과진료가 심미적 치료에 대한 요구 증가 등에

의해 기존의 아말감 수복을 대체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며, 치수치료의 감소와 기성금관 수복의 감소는 심한 우식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결과는 예방치료 비율의 감소이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전면적, 부분적 인두제(人頭制, Capitation system)가 시행되어 수복치료는 감소하고 예방 진료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2000년 7월에 개정된 국민건강보험은 치아우식 활성검사 및 처방, 전문가불소도포, 치면열구전색 등의 예방진료를 비급여진료로 분류함으로써 구강병 예방진료를 기피하게 하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행위별 수가제로 질병의 치료에만 급여를 지불하여, 환자로 하여금 질병이 발생한 후에야 치과를 찾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비능률적인 현상은 예방과 정기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보호자의 인식과 체계적인 보건행정제도의 확립에 의해서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조사는 단기간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소아치과에서 행해진 진료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것이므로 더욱 체계적이고 정확한 진료현황 조사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요 약

2000년 9월 1일부터 2005년 8월 31일까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소아치과에 내원한 모든 초진 및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환분포 및 진료현황 변화추세를 조사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2000년도에는 예방치료가 14.5%, 수복치료가 52.6%, 외과치료가 11.4%, 교정치료가 21.5%를 차지하였으나, 2005년도에는 예방치료가 12.1%, 수복치료가 38.3%, 외

과치료가 13.7%, 교정치료가 35.9%를 차지하여 예방과 수복치료의 비율의 감소와 외과와 교정치료의 증가를 보였다.

2. 수복치료의 비율에 있어서 아말감과 기성금관, 치수치료의 비율은 감소하였고 글래스 아이오노머와 레진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3. 내원환자의 수는 2002년까지 증가하다 이후로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4. 연령별 분포에서 2000년도에 비하여 2005년도의 신환평균 연령이 감소하였다.

참고문헌

1. 차문호 : 소아치과 치료 현황에 관한 연구. 대한소아치과학회지, 7:7-11, 1980.
2. 차문호 : 소아치과 치료 현황에 관한 연구. 대한소아치과학회지, 12:189-103, 1986.
3. 최형준, 손홍규 : 연세대학교 치과병원 소아치과에 내원한 신환에 대한 분석연구. 대한소아치과학회지, 18:131-144, 1991.
4. 김용수, 이상훈, 김진태 : 소아치과 수련 여부에 따른 수도권 지역 치과의사의 소아 환자 행동 조절 및 진료 현황에 대한 비교 연구. 대한소아치과학회지, 23:145-160, 1996.
5. 류현섭, 김효석, 이창섭 등 : 최근 10년간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소아치과에 내원한 신환에 관한 역학적 연구(1990-1999). 대한소아치과학회지, 28:345-353, 2001.

Abstract

THE CHANGES IN PRACTICE PATTERN AND PATIENT DISTRIBUTION FOR LAST 5 YEARS(2000-2005) IN THE DEPARTMENT OF PEDIATRIC DENTISTR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Eun-Jung Choi, Tae-Ryun Jung, Chong-Chul Kim, Young-Jae Kim

Department of Pediatric Dentistry, College of Dentistry and Dental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pectrum of pediatric dentistry has been changing recently, due to many socioeconomic changes and developments in dental material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cognize the changing pattern in pediatric dental treatment and to present the direction for pediatric dentistry in the future.

Patient distribution and practice trends were reviewed based on the patient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pediatric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from 2000 to 2005.

Results were as follows:

1. In 2000, preventive treatments comprised 14.5%, restorative treatments 52.6%, surgical treatments 11.4%, and orthodontic treatments 21.5%. In 2005, the percentages were changed to 12.1%, 38.3%, 13.7%, and 35.9% respectively, showing a decline in preventive and restorative treatments and an increase in surgical and orthodontic treatments.
2. In restorative treatments, the proportion of amalgam, stainless steel crown restoration and pulp treatments decreased, and that of glass ionomer and resin restoration increased.
3. The number of out-patients increased from 2000 to 2002, and decreased thereafter.
4. In 2005, the average age of patients decreased from that of 2000.

Key words : Practice pattern, Changing trends, Patient distribution, Average age, Treatment ratio